

# 인권 최우선은 '시민과의 소통'... 주변 작은 차별부터 개선



제2부 선진 인권도시에서 배운다-獨 뉘른베르크 ④

◇뉘른베르크의 인권정책 철학=뉘른베르크의 인권 정책의 첫 번째 기준은 일관성이다.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권정책을 만들때 일관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 지도자 주도 아래 정책을 펼 경우 시민들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기관의 일방적인 인권정책이 아닌 시민들 간 '소통'을 통해 인권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때문에 뉘른베르크시 인권담당관실은 뉘른베르크시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선출직 시장이 자주 바뀌더라도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뉘른베르크시가 인권문제에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변의 작은 인권부터 우선 챙기자는 것이다.

따라서 뉘른베르크 인권담당관실은 사회와 학교,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작은 차별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작은 차별을 자연스럽게 없애는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인권교육이다. 교육이 가장 중요

하지만, 단순히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인권교육부터 현재의 인권차별에 대처하는 방법과 미래의 인권 방향에 대해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산하고 있고, 교육 내용은 인간존중, 관용, 평등에 대한 이해와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뉘른베르크시 인권담당관실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각종 인권단체들이 학교와 경찰, 양로원 등 시설을 방문해 교육하는 등 시민 전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학교에 입학하고, 관공서에 취직할 때 인권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는 등 인권교육과 관련한 정책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 더 나아가 뉘른베르크시의 에어랑엔,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과 협력을 맺고 인권교육방법론과 질적 관리를 위한 강좌를 마련해 인권교육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의회도 인권문제에 앞장=뉘른베르크 인권담당관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권담당관실이 생긴 뒤 그동안 선출직 시장이 3명이 바뀌었다. 그동안의 시장들은 인권문제에 뒷전이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뒤

뉘른베르크의 인권정책에는 특별한 철학이 있다.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인권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시민참여를 유도해 시민과 함께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특히 시의회가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인권담당관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종 포럼을 만들어 인권정책을 전국·세계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젊은층 대상 교육 확산... 인간존중·관용·평등 강조

## 시의회, 인권담당관실 전폭 지원... 정책 적극 추진

## 세계 문화·종교·민족 간 차별 막기위한 포럼 개최

따랐다.

하지만, 시의회가 인권담당관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인권정책은 위축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었다.

일부 극우 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소속 시의원들이 인권문제에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일의 주요 정당인 사회민주당과 기독교민주당은 뉘른베르크시가 인권도시로의 자긍심을 지키고,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두 정당의 경우 정치적 이념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정치 문제로는 갈등을 일으키지만, 인권문제라면 팔팔 뚱쳐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도시 간 네트워크가 중요=뉘른베르크시는 인권

정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도시의 부서와 기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인들에 대한 의사치료 지원 등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의료보험과 체류허가, 외국인 관청, 사회복지 업무 관청, 병원과 병원, 치료시설 등은 협력해야 할 부분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뉘른베르크는 또 독일 내 도시 간 네트워크뿐 아니라 유럽 일부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유럽과 전세계 지역에서 문화적·종교적, 민족(인종) 간의 차별을 막기 위해 각종 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마티나 미텐위버 인권정책담당관

## 광주 인권도시 발돋움 시민참여 유도 가장 중요

"인권 문제는 정치 지도자 주도 아래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참여해야만 올바른 인권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



뉘른베르크시 마티나 미텐위버(Martina Mittenhuber) 인권정책담당관은 "광주가 올바른 인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렇게 조언했다.

마티나 국장은 "광주가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민주화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인권 도시' 추진은 환원할 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정치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인권정책을 추진하면 시민들의 호응이 부족해 사실상 도시 내에 인권이 뿌리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인권'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시민참여를 통한 인권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특히 인권담당관실은 시로부터 사실상 독립기관이 되어야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뉘른베르크의 인권 정책의 첫 번째 기준은 일관성"이라며 "인권 정책이 일관성을 잃으면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권정책을 만들때 일관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티나 국장은 "여러 인권 영역에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만, 뉘른베르크시의 인권담당관실의 상시 인력은 4명 뿐이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할 수 없는 영역도 많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해 줄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대학 등의 협력 파트너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뉘른베르크시는 이민자에 대한 인권도 중요시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인권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한가롭게 시내 분수대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들(왼쪽)과 맥주 집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환담을 나누고 있는 노인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b>정다방</b> 동구 대인동 311-4 한국별관앞 2층 생화차, 녹차, 커피 등 아늑한 분위기 <b>대표 : 한영숙</b> ☎062)236-2627	<b>기담철학원</b> 북구 두암동 594-23 화정사우니앞 시주학(음권, 양권) 쉽고 빠르게 가르쳐 드립니다. <b>기담 : 배완식</b> ☎062)263-0208	<b>CANON(캐논)호남총판</b> 북구 이동 오거리 소니매장건너편 DSCR, 컴팩디카, 약세시리 <b>대표 : 김운수</b> ☎062)383-3000	<b>아송실업</b> 금남로2가 이송빌딩 91.25평 임대가능(모든업종가능) <b>☎010)6602-1597</b>	<b>별안경콘택트</b> 황금동 그랜드호텔에서 광복사 사이 창업25주년 기념세일 50%~30% 누진다초점, 렌즈전문점 <b>대표 : 유선일</b> ☎062)224-4765	<b>시몬스침대동광주점</b> 북구 두암동 홈플러스건너 육교밑 각종침대 전국최대 매장 <b>☎062)62-3113</b>	<b>동해아구찜</b> 문흥동 963-6 우미차 @ 건너 아구찜, 아구찜전문점, 단체손님환영 <b>대표 : 조영덕</b> ☎062)264-6611
<b>완산골명가(치평점)</b> 서구 치평동 1233-2 센트럴호텔근처 식서류, 요리류, 단체손님환영 <b>☎062)373-9779</b>	<b>유아미헤어</b> 용봉동 꿈에그린@입구 버스승강장옆 일반발, 새치염색, 디지털, 컬러염색, 셋팅, 메지, 볼륨매지, 메니큐어, 영앙클레틱 전문헤어샵 <b>대표 : 임은화</b> ☎062)512-4743	<b>진안수삼흥삼도소매</b> 북구 두암동 농협 3거리 삼의모든것, 도·소매 취급전문 액기스는 직접달아들입니다.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b>대표 : 김계환</b> ☎062)364-3838	<b>신중환이비인후과</b> 남구 봉선동 동아여고입구 농협옆 감기, 귀, 목, 목질, 소아비이비인후과 컴퓨터청력검사, 축농증내시경검사 알레르기검사, 중기흡입치료기, 수술현미경 <b>☎062)676-5075</b>	<b>소문난갈비</b> 중흥동 북구청 맞은편 북개도동 용봉사적앞 삼겹살 4,000 갈비살 6,000 백반 4,000 갈비탕 5,000 <b>☎062)265-1345</b>	<b>남선석유주식회사</b> 동구 용산동 남초등학교 건너편 석유류, 윤활유 도소매 <b>☎062)221-5151</b>	<b>남영사주카페</b> 월산4동 윤진각 옆 대창목욕탕 사단법인 한국여성인형회(공회)를 건강지킴이 주재 차한잔의 여유와 인생의 공금함 <b>☎062)675-6955</b>
<b>엄마손맛백반</b> 북구 두암동 금호@맞은편 엄마손맛백반, 우렁쌈밥정식 고등어갈비정식, 알탕정식, 아구찜 <b>대표 : 김호배</b> ☎062)525-0202	<b>30년식당</b> 월산동 윤진각 사거리 특별한 음식 전문점 가지 반찬과 다량, 오리주물럭, 국이매일매일 <b>대표 : 은남수</b> ☎062)369-1185	<b>인성공인중개사</b> 동구 충장로 2가 예인천하 건너 이트박스옆 3층 동산, 부동산 임대 매매 전문 <b>대표 : 정일성</b> ☎062)222-6670	<b>브라이드앤정우웨딩샵</b> 불로동 호남동성당앞 광주 전남웨딩홀예약웨딩드레스, 메 이크업, 웨딩포토전문 <b>☎062)222-2343</b>	<b>가마솔리주공방</b> 동구 서석동 45-10 KT앞 나주공방 전문 <b>☎070)8879-1008</b>	<b>함양·참웃담</b> 북구 유동 삼성병원 뒤 수창초교 후문건너편 웃담, 웃삼계탕, 삼계탕 단체손님환영 <b>☎062)515-5757</b>	<b>큰웃B&amp;W</b> 북구매곡동 북부경찰서 건너 우리투지증권 1층 Free~130size <b>☎062)574-8377</b>